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기 촬영법(마지막 회)



글 · 사진 | 예민수(para@paraview.co.kr)

필자의 어린 시절부터 무한한 동경의 대상 이었던 것이 항공기였습니다. 초등학교 6년간 고사리 손으로 모은 학교저축통장을 올인 해서 만들었던 모형항공기가, 단 30만에 추락하는 바람에 박살이 났던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공기는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군대는 항공기가 좋아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저의 첫 사회생활은 사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항공기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기 촬영법」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기 촬영법」이란 제목으로 연재했던 3년 동안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촬영했던 저의 캐논 D-60 카메라는 이미 시장에서는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첫 회(2004년 여름호)를 시작할 때 당시 필름에 해당하는 디카의 저장장치인 1G용량의 CF 메모리는 30만원대에서 지금은 3만원 이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한 것이 이 디지털 장비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아날로그에 가까운 디카용 렌즈가격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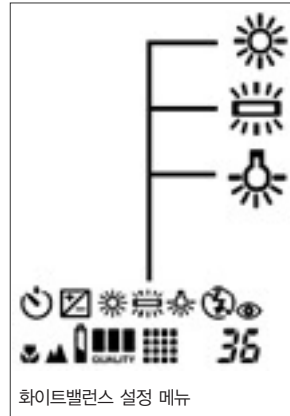


장비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에 비유됩니다. 지나치게 장비에 의존하다보면 실제로 실력 있는 화가로 조명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디지털 장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표현된 사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은 카메라가 찍는 것이 아니라, 셔터를 누르는 사진가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장비 탓만 하지 마시길).

첨단 디지털 장비를 잘 응용하면 실제보다 더 실감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작업인 '디지털 테크닉(포토샵 작업)' 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인 항공기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모든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과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 '컬러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오토밸런스를 이용 하게 되지만, 웬만한 기종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컬러밸런스 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이 컬러밸런스의 원리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색상은 여러 파장이 혼합된 광선이 피사체를 비추어서 일부파장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광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광선이라면 제대로 된 원색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 나트륨등이 켜진 터널 안에서 차량의 색상은 왜곡되어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인 광질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어 있는데, 기계의 한계가 있어서 카메라가 판단하는 자동밸런스로 촬영하면 제대로된 색 재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자설정 (Custom WB)'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흰 종이를 촬영광원에 두고 입력시켜서 흰색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흰 종이 보다는 한 단계 진화한 불투명한 흰색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렌즈 앞에 두고 촬영하고 입력을 시키는 필터가 나와 있습니다.(www.zerocs.com)

[Custom WB] 설정은 사용자의 카메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AUTO 화이트 밸런스 값 보다 정확한 컬러값을 얻어내기 위한 컬러 보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ustom WB]는 사용

자 카메라에서 중성 그레이



AUTO 화이트 밸런스 값보다 정확한 컬러값을 얻어내기 위한 필터

인공적으로 만들어기 위해 적색, 녹색, 색 채널(RGB)을 적게 분배해서 정확한 색 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최고 매력은 촬영된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컬러밸런스는 물론 프레임 구성이나 피사체의 순간 변화를 체크할 수 있어서, 촬영자가 나올 결과를 미리 확

인해 볼 수 있기에 촬영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은염사진보다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을 선택해야 하는 '비행중인 항공기 촬영'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스톱 펜닝사진

비행기 촬영에서는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비행중인 항공기 촬영에는 적절한 망원렌즈(일반 렌즈로 환산 시 약 500mm에 해당)와 렌즈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DSLR)가 필요합니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워낙 빠른 속도라 셔터를 누르면 지연시간이 있는 조그만 디카로는 비행중인 항공기 촬영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사진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디카와 적절한 망원렌즈 그리고 많은 촬영경험이 필요합니다(소형 디카의 최고의 단점이 이 셔터 지연시간입니다).



비행중인 풀 프레임 항공기(S-9)

빈 도화지에 그려 넣는 회화가 덧셈 이라면 사진은 뺄셈의 예술입니다. 항공기 위주의 사진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항공기만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외에는 프레임 밖으로 퇴출시켜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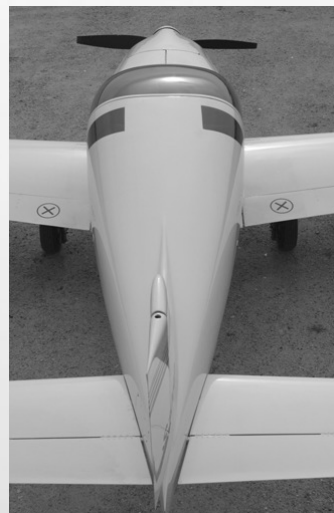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것이 좋은 사진의 기본입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피사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카메라의 앵글(높이)을 조금만 바꾸셔도 색다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상주기중인 항공기 스톱의 클로즈업



지상주기중인 스톱, 광각렌즈를 이용한 클로즈업



▲▲ 하이앵글, 필사 전체 모습 및 클로즈업

사진의 결과를 좌우하는 노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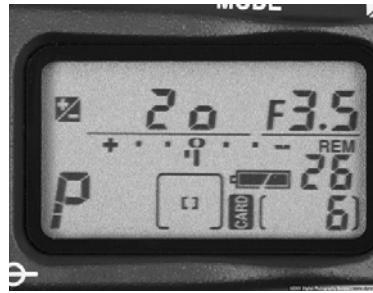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사진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노출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으로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촬영한 필름이 현상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측만 할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노출'은 사진의 색상이나 농도를 좌우합니다. 농도는 결국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화면 속의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판단력이 없어서 반사체의 반사율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피사체를 평균농도(반사율 18%)의 반사율이라고 가정하고 노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사체가 표준반사율에 가까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설정이나 탄광지역 촬영 시에는 노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설정 촬영 시에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메라가 [설정]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밝다고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결국 흰색 눈의 농도를 중성회색의 밝기로 노출을 결정하기때문에 산뜻한 설정사진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때 노출을 오버(+1stop~2stop)해 주시면 제대로 된 설정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진 관련 책을 10권 읽으신 것보다 더 유용합니다.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와 색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기술적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사체인 항공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항공기 자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냥 기계적인 공학개념으로만 바라



노출 설정 메뉴

본다면 좋은 항공기 사진을 얻기 어렵습니다.

같은 속제라도 좋아하는 과목을 즐겁게 할 때와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 할 때의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좋은 사진을 원하신다면 피사체

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도 같은 인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촬영할 때와 철천지원수가 촬영할 때 촬영자에 따라서, 결과물은 같은 인물이라도 나타난 결과물인 사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피사체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3년간 연재를 하는 동안 항공기 촬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서울에어쇼'였습니다. 행사 기간중 다양한 항공기가 전시된 것은 물론 F-15, F-16, 블랙이글스 등이 화려한 기동으로 하늘을 수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기사를 읽어 보셨다면, 내년에 개최되는 서울에어쇼에서 실력 발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